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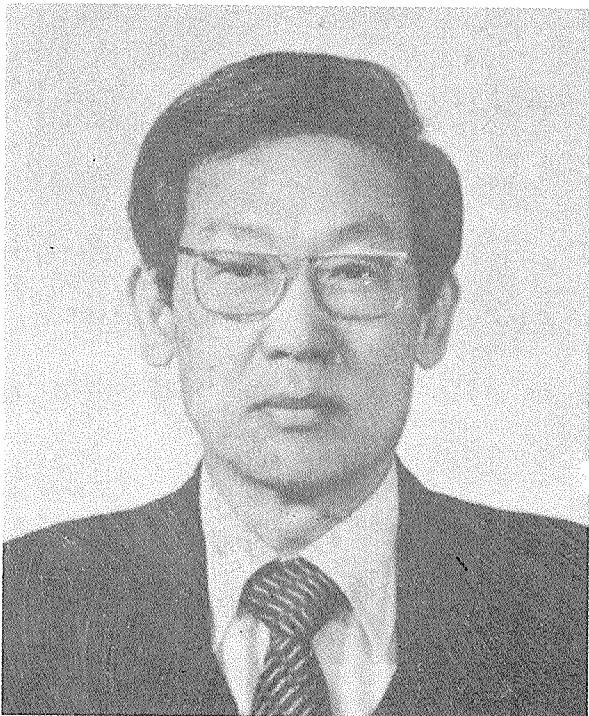
학술토론회 (Conference) 소개 - 3

Introduction of ACA-3 Conference

ACA3 집행본부 기획위원회

기조연설

연사 : 한태동
 제목 :



한태동

발표연사소개 :

중국의 로우리 인스티튜트와 세인트 존스 대학을 졸업했으며 1956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기독교사상 강좌교수 및 동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동대학 명예교수이다. 저서로는 '종교와 기독교'가 있으며 약 60편의 발표논문이 있다.

연설초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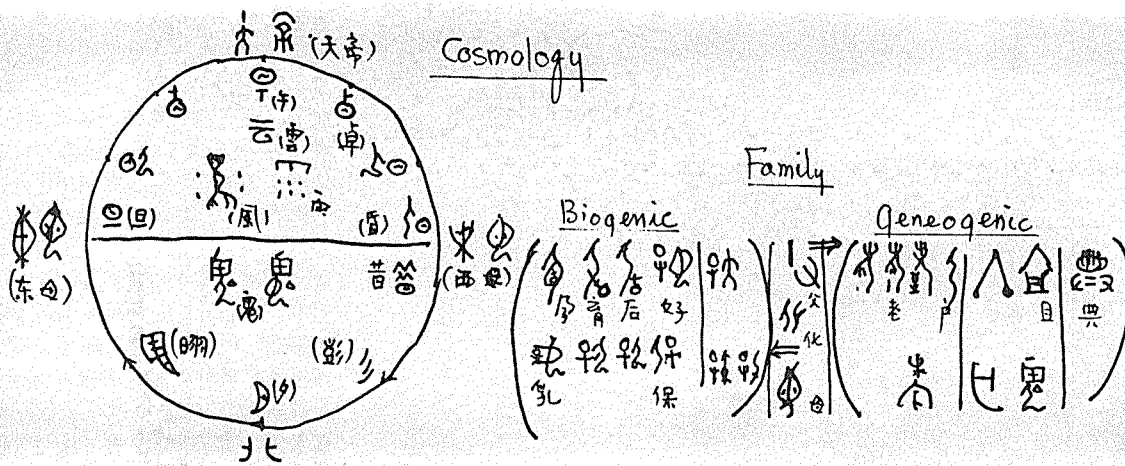
아시아 문화권에서의 전통적인 공간성에 대한 건축의 근대성을 얘기하기전에 지난 반세기(1930~1980)동안의 주요 발전상을 개괄해 봅시다.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라는 계명에 잘 나타내지는 바와 같이 미스 반 데어로는 공간미학에서 단순비례라는 한계를 넘어 단위 벡터가 벡터합의 일반법칙으로 제시되는 단순화된

일차선형성을 추구했다.(수동)
 이러한 선형의 구법은 공간을 투명하고 엄격하며 살아남을 수 있게 했다.
 꼬르뷔제는 단순 스칼라 승합에다 대수적 증가를 공간성에 보탤었다. 그는 공간을 순차적으로 상호연관속에 확장하고 율동적으로 진동하도록 했다. $y = f(\sin X^2)$. 한편 그로피우스는 다변수 함수의 관점에서 벡터의 차원을 확장했다 : $y = f(X_1, X_2, X_3, \dots)$

대수학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건축공간을 개념적으로 정의했고 그리고 여기에다 이의 스칼라 및 벡터의 요소를 부가했다. 위상학적으로는 그들은 분리(T_2 공간)가 가능하고 실함수(유리손레마)의 관점에서 켈 수 있는 계량공간'위에 그들의 건축을 구성했다. 이들 근대건축의 외연적 공간에서의 성과는 공간조직에 긍정적인 공헌을 했다. 이러한 확장으로부터 전통을 선호하는 원시성으로 되돌아 갈수는 없게 되었다.

'우주'와 '집'의 전통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거의 3500년전에 사용되었던 가장 오래된 문자라 할 수 있는 갑골문자로부터 재구성이 가능하다. 이에 의하면 우주는 원초적인 조상들로 구성되며 태양으로 상징되는데 태양은 모성의 동쪽에서 태어나 정으로 진행하며 다시 모성의 서쪽이 받아주어 저승으로 내려가게 된다. 태양의 하강은 북소리로 알 수 있고 이의 상승은 시간의 순환을 나타내는 날개로 예시된다. 중앙의 수평선은 인간이 거주하는 지구를 뜻한다. 지구는 풍요한 수확을 위한 비를 바람과 구름의 매개로 얻는다.

가족과 집의 기능에 관련한 어머니는 생물적 과정에 관여하고 아버지는 유전적 과정에 관여한다. 생물적 과정은 아이의 잉태로부터 성숙하기 까지의 과정으로 표현된다. 유전적



과정은 지구상의 생활로부터 그의 조상으로 복귀하는 것까지의 기능을 포함한다. 사람이 늙어 죽을때 그의 몸은 시체가 되며 그의 영혼은 그의 자손들에 의해 계속되는 종족의 지지아래 조상들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어떤 영혼들은 흙속에 남아서 산사람들을 괴롭히는 유령이 되기도 한다. 산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꼬인 영혼이 조상의 지위로 복귀하기위해 풀리기 위한 수단이다.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우주는 다차원의 내연적 공간이다. 조상의 세계는 지구상의 현세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며 방황하는 영혼마저 산 사람의 세계에 떠돌아 다닐 수 있다. 그들의 다차원성은 Rⁿ-공간에서 합쳐지며 외면적 공간에서 유효한 '선택의 공리'에 의해서는 구성될 수 없다. 즉 분리된 비 공집합들의 비지않은 클래스가 주어지면, 이 클래스의 각 집합으로부터 정확히 하나의 요소만 취해진 요소들로 구성된 집합이 생긴다.

생물적 및 유전적 과정은 대수적 스케일은 아니더라도 꼬리뿔제의 울동적인 모듈의 증가처럼 보인다. 조상의 위계는 모듈의

단위처럼 집진적으로 각각의 축적을 증가한다. 거리대신에 가치의 정도와 원초성이 영예의 축적의 기준이 된다. 이 모듈의 내연적 공간은 우리의 잠재의식속에 강하게 남아있다.

근대성과 전통의 기본적 관계는 구조적 상충을 제시하지 않는다. 근대건축의 참 문제는 오랜전통의 집합된 차원들의 무시로부터 온다. 예를들면 우리의 집들은 지상 및 지하의 차원을 무시했다. 생의 다차원성은 생의 단차원성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내연적 공간에 대한 인식은 외연적 공간에 대한 지식의 발전에 버금가지 못한다. 내연적 공간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건축의 근대성은 전통의 깊이와 풍부함을 드러낼 수 있다. 이래서야 건축은 안락을 줄 뿐 아니라 평화를 줄 것이다.

* 나는 이 원고를 준비하는 동안 아름다운 그릇에 담긴 국수를 먹었다. 외연적 공간을 국수그릇이라 한다면 국수는 내연적 향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릇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국수를 멋있게 먹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ACA-3 대회 주요 개최 장소

◎ ACA-3 본 대회 :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강남구 역삼동 676번지
Tel : 555-0501
556-0601

◎ 학생 잼보리 대회 :
흥극생명(주)연수원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산 46-53
Tel : 0331) 8-6157~8

◎ 자재전시회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전시관
Tel : 780-3811 (代)

토론회1, 두번째 발표

주제발표연사 : 강홍빈

발표제목 : 기술의 자율성과 사회적 결정론



강홍빈

발표연사소개 :

1971년 하버드 대학원 건축과를 졸업하고 엠·아이·티 대학에서 예술·건축 및 환경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주택공사 건축연구소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작품은 올림픽공원, 독립기념관, 한국의 신수도 등이 있다. 올림픽공원의 성공적인 완성에 공헌한 바 훈장이 수여되었다.

발표문 초록 :

한국에서의 건축관계 기관들은 사회에의 기여를 위한 집단적 추구로 발전될 만한 일들을 겪고 있다. 이 움직임은 기존건축과 실천적 양태를 그 기초부터 재고하려는 젊은

건축가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그들은 건축전문직의 자율성은 순진한 공론에 불과할 뿐이었고 사회현실로부터 격리는 억압적인 사회관계를 영구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퇴행적이라고 여긴다.

적어도 한국에서 자성의 기틀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건축가라는 직업 집단에 대해 이 비판은 새롭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한다. 이 비판은 건축가 집단이 만족하며 그속에서 안주하며 실행해 왔던 이데올로기의 공백을 정확히 집어내고 있다. 외부로부터 인식되어서 급격히 팽창한 건축직업 집단은 물질적 성장에는 크게

이바지 했지만 사회현실과 문화적 전통에 뿌리를 둔 법칙'을 발전시키는데는 실패했다. 건축이 가치중립적인 기술적 실행이 아니면 내적으로 주관적인 예술적 관행으로 여겨지는 한에서 이의 사회적 상호관련성은 도외시 되어왔다. 이러한 태도는 권력 엘리트나 자본가 혹은 벼락부자들간에 그들이 새로 획득한 신분적 특권을 건축형태를 통해 나타내려는 유수의 건축주들에게 의해 더욱 조장되어 왔다.

젊은 비평가들의 판단은 촛점을 찌르고 있지만 그들자신도 사회적 활동성을 선동하는 이상으로 건축의 실천 관행을 개척하기 위한 확실한 계획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결정론의 입장에서는 좀처럼 개혁된 실행을 생각해내기 어렵다. 과도한 건축에 대한 사회적 정의는 사회에서의 건축의 역할에 대한 전적인 회의를 불러 일으키거나 건축 전문직업에 대한 독선적인 자기과장을 초래한다. 젊은 건축가들의 비판속에 내재하는 이 결점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는 건축이 인간활동의 전문화된 분야로서 효과적일 수 있는 영역안에 굳건한 활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두개의 주요 문제점은 '도시주의'와 '건물유형론'의 개념을 세련화 시키는 것과 이를 창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전자는 구문론적이고 후자는 범칙적이라 할 수 있는바, 이들은 집단적 규범이 개개성원들에게 전달되고 또 개인들의 행동이 공동체적 내용을 형성하도록 해주는 주된 매개체이다. 그들은 분명히 사회적 산물이고 개인의 행동을 통해서 물리적 형태로 실현되는 한 건축적 간섭의 정당한 주제라고 여겨진다.

※ 학술토론회 진행안내

제3차 아시아 건축사대회는 이틀간의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이사회에 이어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학술토론회가 있으며 연합행사로서 아시아 건축학생 잼보리대회와 건축작품 전시회가 병행하여 열리게 되어 있다. 금번대회 학술토론회의 주제는

‘아시아정신 :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이다. 학술토론회는 4개의 토론회로 구성되며 제4토론회를 제외하고 매 토론회당 2편의 주제발표가 있게 된다. 1편의 주제발표당 주어진 시간은 40분이며 발표자는 발표에 이어 토론회 의장의 주재아래 2인의 토론자와 20분간 토론을 벌이고 다시 15분간 청중들과 토론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형식으로 3개의 토론회에

6명의 주제발표 연사가 참가하게 되며 마지막 제4토론회는 종합토론 형식으로 대회 수석보고자 (Rapporteur General)의 사회로 6명의 발표자, 기조연사, 12명의 토론연사 및 3명의 토론회의자 등이 모두 참석하여 청중들과 더불어 앞서 3회기에 걸쳐 논의되었던 주제에 대한 종합토론을 가진다. 약 25분에 걸친 기조연설은 8일 저녁의 개회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학술토론회 일정표

일자	주 제	제 목	초 청 연 사	토 론 연 사	토론회 의장	레 포 터
11. 8 (화)	개 회 식 기 조 연 설		국무총리 (한국) 한 태 동 (한국)			
11. 9 (수)	제 1 토론회 건 축 사 와 공 동 사 회	Traditional Processes and Modern Products	C. B. Wilson (영국)	Rusi Khambatta (인도) Robi Sularto (인도네시아)	Felipe Mendoza (필리핀)	Robecca Tobia (필리핀) Shahab Ghani Khan (파키스탄) (1 - 2명 (한국))
		Between Technological Autonomy and Social Determinism	강 홍 빈 (한국)	Lochi Gunaratna (스리랑카) Kington Loo (말레이시아)		
	제 2 토론회 건 축 사 의 사 회 적 임 무	The Public, The Private, and The Sacred	Charles Correa (인도)	Joshua Jih Pan (자유중국) Ejaz Ahed (파키스탄)	김 성 국 (한국)	Zaigham Jaffery (파키스탄) Bashirul Haq (방글라데시) 1 - 2명 (한국)
		Type As a Social Agreement	N. J. Habraken (네덜란드)	Froilan Hong (필리핀) Tomoyoshi Kato (일본)		
11. 10 (목)	제 3 토론회 미 래 의 건 축 사 역 할		Rod Hackney (영국)	Esa Mohamed (말레이시아) Kamil Khan (파키스탄)	Sumet Jumsai (태국)	Michael Sumarijanto (인도네시아) Budi Sukada (인도네시아) N. A. Badheka (인도) 1 - 2명 (한국)
		Place, Environment Stock and Architecture	Tsutomu Shigemura (일본)	Tao Ho (홍콩) 장성준 (한국)		
	제 4 토론회 종 합 토 론		초청연사 전원	토론연사 전원	수석 보고자: Tay Kheng Soon (싱가폴)	결의문 채택 위원
	폐 회 식					